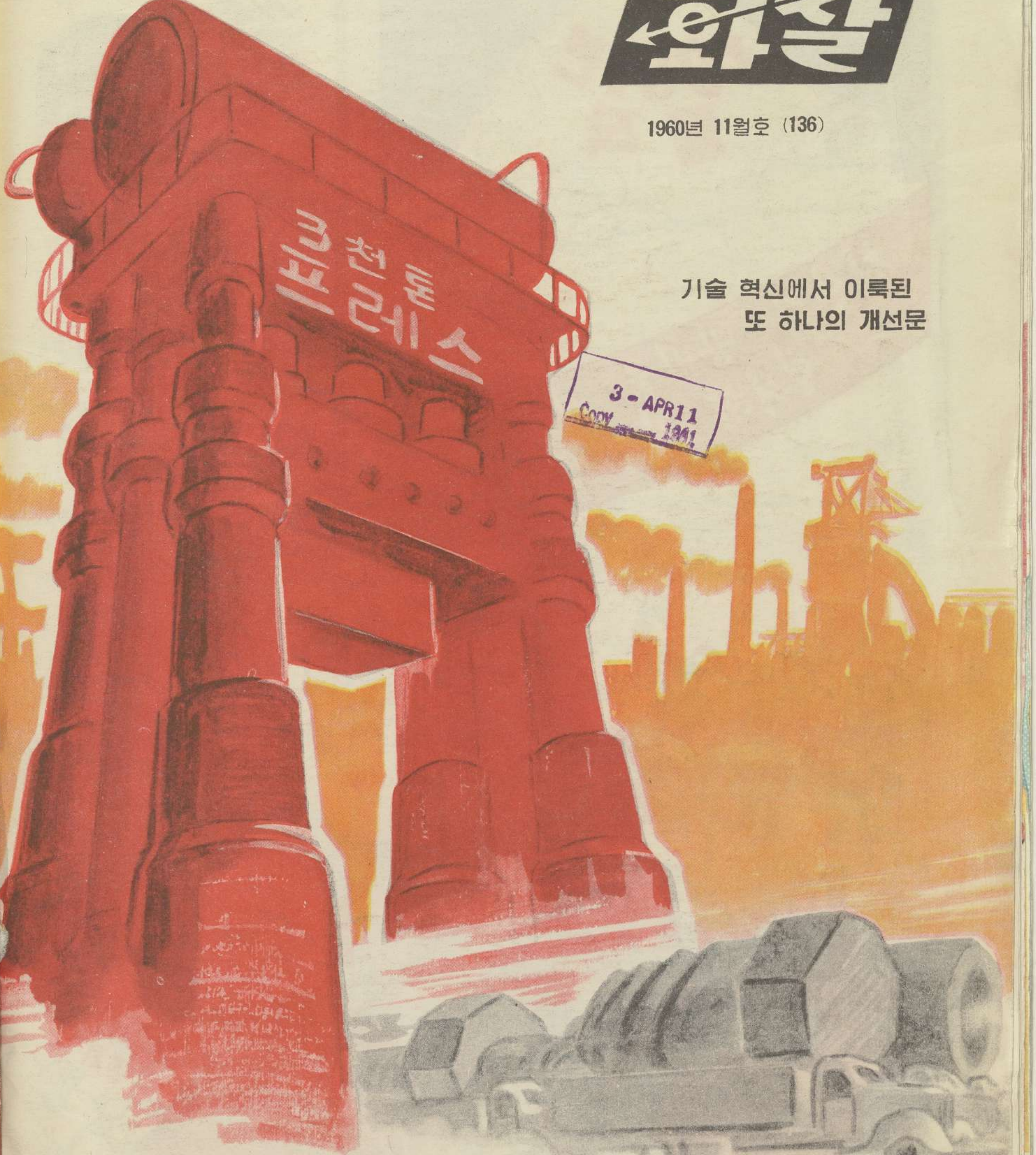
95

화살

1960년 11월호 (136)

기술 혁신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개선문



3 - APR 11
Copy 1961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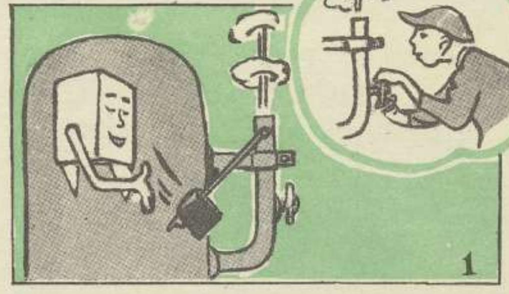
갑 아, 이 친구 오래간만일세! 어딜 이렇게 가나?
을 정말 오래간만일세! 동무네 조합에…
갑 무슨 일로 오나?
을 파견되여 오네! 파견!
갑 파견이라니?
을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을 비롯해서 찌개, 국, 밥 등의 료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보려 온단 말일세!
갑 여, 여, 여보게 자네 료리산가?
을 말하자면 료리사라구두 할 수 있지, 우리 농민들은 오곡백과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거름을 장만하니까 말야!
갑 아하하… 우리 조합의 자급 비료 생산 정형을 견학하려 파견되여 온단 말이지!
을 그렇지 그래, 동무네 조합에서는 거름 생산을 위하여 일대 혁신이 일어 났다구… 우리 조합에서 소문이 자자—하네
갑 소문이 자자—하다구?
을 그럼, 대단하네, 자! 어서 얘기 좀 해주게.
갑 다만… 다만…
을 아, 이 사람아, 어서 좀 얘기해 달래두
갑 우리 조합에서는 말야! 남자 녀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여 푸고, 줏고, 쓸고, 모으고, 긁고, 깎고, 쳐넣고, 쳐내고…
을 뭐뭐… 깎고 쳐넣고 쳐내고…?
갑 열두 바닥 굼기를 비롯해서 논두렁, 밭두렁은 모조리 깎고, 돼지 우리, 외양간엔 짓과 떼'장을 쳐넣어서 잘 밟혀 쳐내고 변소란 변소는 모조리 푸고, 길'가의 소똥은 모조리 줏고, 흙은 아궁에 쳐넣어 흙재를 만들어 모으고…
을 그야 말로 이름도 영양 조합, 오곡의 영양분을 만드는데서 군중적인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군!
갑 아무렴!(신이 나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부터 우리의 기세는 하늘에 닿고 있네! 금분이, 예선이 같은 민청원들은 아침 1 시간 일찍 나오고, 저녁에 1 시간 늦게 들어가는 애국적인 운동으로써 분토를 종래 세 사람이 하루 4~5 톤을 만들면 고작이라고 하던 것을 일약 15 톤까지 생산해 내는 기적을 올리고 있으니 민청원들은 너도 나도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단 말야!
을 여보게 대단하네, 대단해!
갑 그 뿐이 아니지, 칠순이 넘은 셈집 할아버지 같은 분은 종래는 방안에서 화로와 씨름만 하고 있더니 지금은 90이 환갑이라면서 큰 길, 작은 길 할 것 없이 산으로, 들로 활개쳐 다니면서 개똥 소똥을 하루 3~4 가마니씩 모으고 있단 말야!
을 야아! 그야 말로 혁신이로군!
갑 이 사람아, 이런 모범적인 사실을 하나 하나 들자면 한이 없네,
을 알만하네. 거름 생산에서도 정말 천리마를 탔네구려!… 근데 여보게 대체 한 사람이 하루 얼마씩 생산하나?
갑 인분, 분토, 떼, 진개, 두엄, 유기 광물질 비료 등 통쳐서 하루 한 사람이 6 톤은 넉넉히·생산해 내거든!…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우리 작업반에서도 명년 3월 전으로 정당 80 톤씩 낼 거름을 장만하게 된단 말야!
을 뭐, 뭐, 80 톤씩 낼 수 있다구?
갑 그렇지, 틀림 없이 80 톤이지!!
을 그럼 알곡은 정당 몇 톤이나 나올까?
갑 땅이 나쁜 윤세기 논에 정당 25 톤씩 거름을 내여 7 톤의 소출을 냈으니까 80 톤씩 낸다면 가락 같은 벼이삭이 우롱주롱 달려서 천 고랑 만 고랑 황금 파도가 물'결칠 게 아닌가!
을 여보게! 관리 위원회가 어딘가? 전화를 좀 걸어야겠네!
갑 이 사람이 별안간 전화는 무슨 전환가?
을 림산 사업소에 좀…
갑 왜?
을 아, 그렇게 많은 소출을 낸다면 벼가 쓰러지지 않겠나?! 그러니 목재를 구하여 벼를 벌혀 주어야지!
갑 아하하… 하야튼 고맙네! 그러나 그건 아이도 낳기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마련하는 격이라구… 그보다 견학의 선물로서 우리의 혁신의 불씨를 어서 가져 가야 할 게 아닌가!
을 아, 아, 그래, 그래! 어서 가서 우리 조합에서도 혁신의 불'길을 올리겠네!… 자, 안녕히

피 호주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명년도 다수확을 위하여 농업 생산 계획을 조합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정확히 수립하며 다수확의 기본 고리로 되는 자급 비료 생산에 중요한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명년도에 소요되는 종자 전량을 우량종으로 확보하며 농기계들의 수리 보수 사업과 기계화에 적응한 경종 방법을 적극 도입할 뿐만 아니라 농기간에 능률적인 소농기구들을 다량 생산하며 랭상모 문짝 종이 기름 등 자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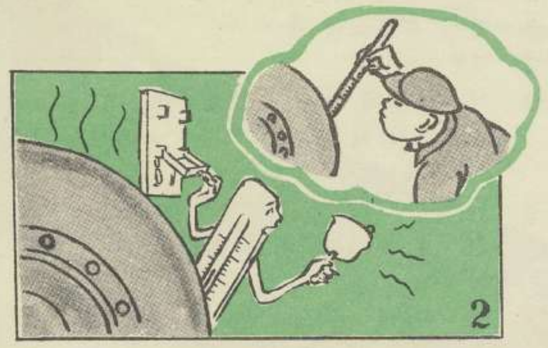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글 리 윤봉



판팡 단원—저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저 것이 돌렁 떨어지면서 김이 샙니다.

운전공—그렇게 돼도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기압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마개를 열던 것을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열어 준 겁니다.



판팡 단원—여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압축기에 한 사람이 줄곧 붙어서 열을 재던데 여기선 왜 안잽니까?

운전공—우리두 전엔 그렇게 사람이 일일이 돌아 다니며 쟀지요.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온도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위험하면 자동적으로 기계를 세워까지 줍니다.

판팡 단원—그런데 왜 하루 종일 가도록 기계에 기름을 안 줍니까?

운전공—사람이 일일이 주던 걸 유압 펌프가 자동적으로 기계틀에 기름을 줍니다.

판팡 단원—아니 이 배전함의 계기를 보고 기계 상태를 안다면서 이걸 보는 사람이 여길 떠나면 되우? 그러다 사고나 나면 어떻걸라구?

운전공—일 없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저 종이 《위험합니다!》 하고 나를 부릅니다. 그때 와서 위험 신호가 가리키는 곳을 가 보면 제꺽 위험 개소를 발견해 낼 수 있어요!

판팡 단원—저 시계 같은 건 뭔가요?

운전공—그건 막힌 곳도 보이는 이상한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것만 보면 합성 직장에 있는 질소 탕크에 질소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도 보입니다. 저것이 없을 때는 합성 직장에서 줄창 전화기에 달라 붙어 탕크에 질소가 너무 많다 너무 적다 하구 우리한테 급하게 야단쳤답니다.

판팡 단원—거 외국에서 참 잘 들 만들었군!

운전공—이건 우리가 모두 만든 겁니다.

판팡 단원—예—이것들을 만드노라고 수고가 태산만 했겠습니다.

운전공—예 처음엔 모두 자동화하자고 나서긴 했지만 정작 착수하니 기술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자동화 같은 거야 기술자들이나 할 수 있지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매 기대에 사람이 붙어 있어서두 이따금 사고가 날번 하군 하는데 사람이 없이 어떻게…》 《정밀한 계기두 없이 어떻게 한다구…》 하고 반대해 나섰습니다.

운전공—그러나 자동화를 하려는 우리의 불 같은 지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 병환 동무의 설계를 가지고 전체 직장이 모여 토론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그런즉 좋은 고안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리기의 마개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압축기가 열이 나 위험해지면 저절로 스위치가 떨어져서 기계가 서면서 위험 신호와 종이 나게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운전공—이렇게 해서 설계를 만들어 놓으니 이번엔 또 자재들이 우리 앞을 막아 서며 코웃음을 합니다. 《우리 끼브선만 해도 8,000m, 동세관이 7,000m, 철판과 공구, 계기들이 수 천 종이나 요구되는데 당신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소? 공무부에서 즉시 해결 받을려군 믿지 마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직장이 총동원 돼서 유휴 자재를 회수하고 자체로 깎아서 수 천 종이나 되는 공구, 지구, 철판들을 해결했습니다.

운전공—허지만 분리기의 압력이 한계 압력을 넘어 서면 저절로 마개가 열리도록 중압 자동 안전변을 설치하려 여러 번 시험해 보았으나 그 때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보수주의자와 기술을 신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라구! 안된다는 데두…》 《그렇게 자동화가 헐한 줄 알구서…》 자신을 못가졌던 사람들도 기운을 잃고 물러 앉고 말았습니다.

운전공—그러나 당의 호소를 실천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의 고무에 우리는 새 용기를 얻어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낡은 것만 고집하는 온갖 보수주의, 소극 분자들을 차 던지고 장수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원인을 알아 보았습니다. 기계들이 정밀하지 못한 탓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기들을 만들어다 시험에 시험을 거듭했습니다.

운전공—그리하여 다섯 번만에야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성을 올렸지요. 그 바람에 모두 부서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판팡 단원—저런! 그렇게 수고스레 만든게 다 깨지고 말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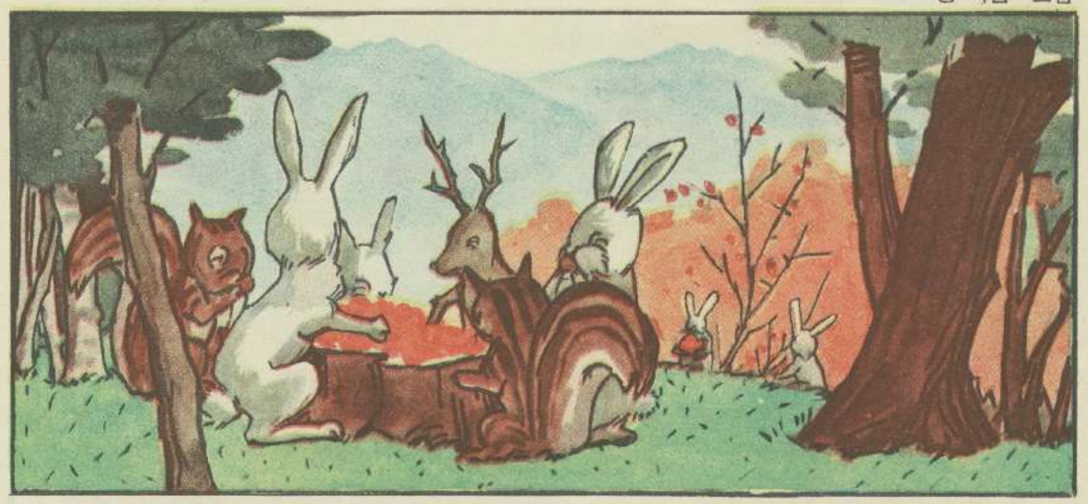
운전공—아니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조각도 못찾게 산산히 부서졌다는 걸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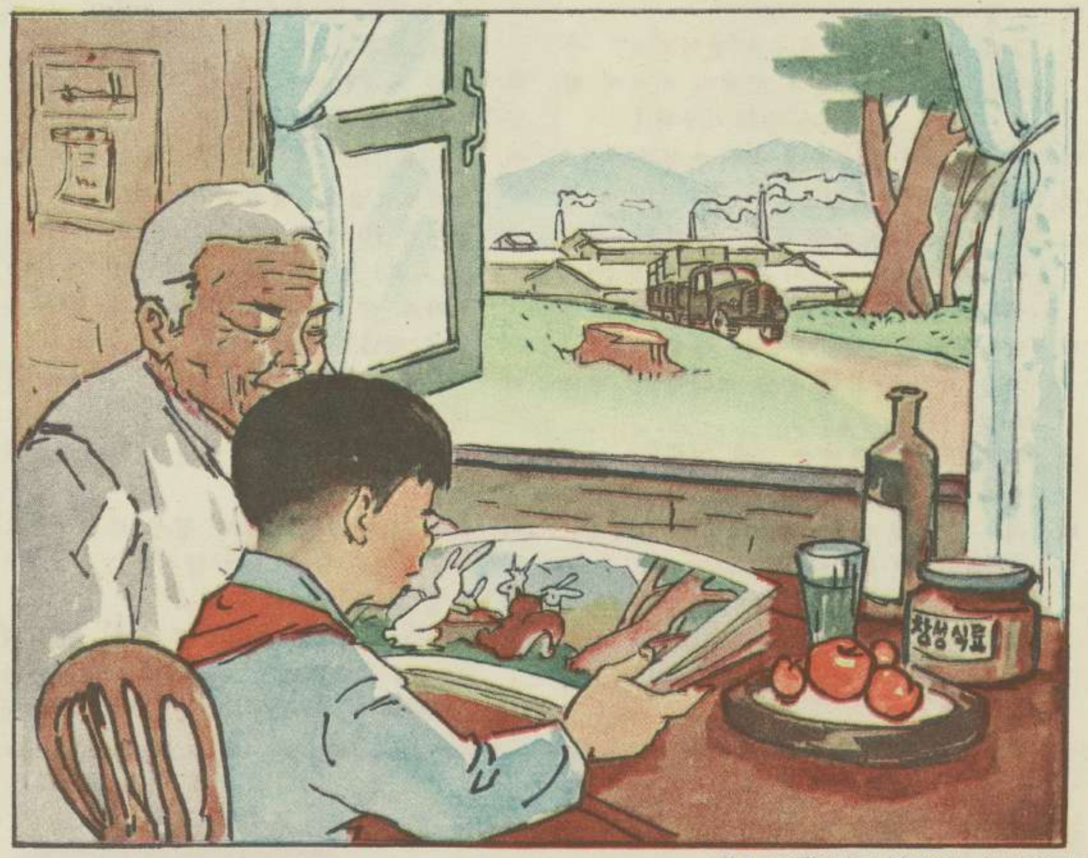
운전공—그리하여 260 개 소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와 신호장치, 106 개소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알려 주고 압축기와 분리기가 위험하면 자동적으로 기계를 멈추고 알려 주는 종합 자동 배전함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36 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이렇게 여섯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지금 전 직장을 여섯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원거리 자동 조종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 종호 그림

《황금산》 이야기

송 시엽 그림





—바로 여기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산 짐승들의 놀이터였단다

《황금산》이라고 불리우는 평북 창성군에서는 얼마전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값 없이 쓰러져 버리던 산열매, 노박, 취넝쿨 등이 막대한 재부로 훌륭한 인민 소비품으로 전환되고 산'골자기의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게 되여 궁벽한 이 산'골에 훌륭한 사회주의적 새생활이 건설되였다.

동림군 청강 농업 협동 조합과 양덕군 봉계 농업 협동 조합의 축산 경험은 공동 축산과 개인 축산을 옳게 배합시키며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큰 밑천과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매 농호 당 1년에 돼지 2 마리와 30 마리 이상의 토끼, 10~20 마리의 가금을 길러낼데 대한 당의 호소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사'짐도 늘고 가축도 늘었다

—토끼가 설흔 마리, 오리가 열 마리, 닭이 열 마리 그리고 돼지가 두 마리야 잘두 따라 오는구나!

조 명식 그림

3천 톤 프레스

김 철희

녀 어디 출장 갔다 오시나요?

남 예… 《어머니 공장》에 좀…

녀 어머니께서 공장에 다니시나요? 댁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더니…

남 예 전시에 돌아가셨지요

녀 그럼…

남 그럼 계모라도 생겼는가 말이지요? 동무는 인사는 밝은데 천리마 시대의 현대어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녀 아니 어머니 공장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남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공장에 갔다 왔지요. 기계를 낳고 공장을 낳는 어머니 공장—우리의 자랑인 룡성 기계 공장에 갔다 왔지요

녀 예—공장을 낳는 어머니 공장… 그럼 기술 혁신을 위해 무슨 기계라도 부탁하려 가셨댔나요?

남 아니 그 어머니께서 금번 거인을 낳으셨기에…

녀 예— 알만해요 8 메터 타닝반 말이죠

남 원 천만에! 8메터 타닝반은 벌써 두 살이 되였답니다. 천리마 시대의 력서에 비추어 보면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때의 일이죠. 이번에 그의 동생이 탄생했단 말이외다.

녀 아니 동생이?

남 동생이라 하지만 이만 저만한 거인이 아니지요. 어떤 외국 손님이 룡성 기계 공장의 8 메터 타닝반을 보고 《이건 기계가 아니라 군함이군!》 하고 놀랬다지만 이번에 난 동생은 그 기계의 4~5 배나 된답니다.

녀 정말 거인인데요 그게 무슨 기계예요?

남 3천 톤 프레스!

녀 오—라 그게 바루 소문에 듣던 3 천 톤 프레스로군요. 굉장히 크겠지요

남 높이가 18 메터니까 전보대의 서너 배나 되고, 길이는 31 메터니까 웬만한 아파트 길이만큼은 하고 폭은 6 메터니까 웬만한 도로폭만큼은 하지요

녀 아이유! 그렇게 큰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 바로 천리마 나라의 룡성 기계 공장에 있다지 않습니까?

녀 그럼 동생이 형님보다 훨씬 더 크군요

남 커도 이만 저만 크지 않지요.

녀 정말 으리으리하겠구만요

남 산모는 그걸 낳는 과정에 더욱 튼튼해졌지만 프레스님의 체중은 이만 저만하지 않지요. 순전히 쇠로 되였는데 기계의 총 무게는 1천 2백 톤, 2 톤 실이 화물 자동차에 실자면 600 대 분의 쇠가 들었답니다.

녀 그야말로 태산 같겠군요 그러니 힘이 대단하겠지요

남 대단하다 뿐이겠습니까? 3천 톤 무게로 내려 누르는 힘을 가졌기에 성은 3천 톤, 이름은 프레스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녀 곧 활동하게 되나요?

남 예, 곧 황해 제철소에 입직하지요. 거기서 누르고 늘쿠고 오그리고 구부리고 두들겨 한 길 두 길 되는 쇠'덩이를 엿가락 늘쿠듯이 도룹프스 찍어내듯 순식간에 룩탁주르르 주물러 내면 이 거인님은 대형 설비의 전보'대보다 더 큰 축이나 8백 기압의 고압에 견디어 내는 고압 탕크, 고압반응 케스 같은 화학 설비를 척척 찍어 내지요

녀 정말 대단한 기계로군요.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라는 데 그건 왕의 왕이군요

남 암 그렇구 말구요. 이건 7개년 계획은 문제 없다고 소리치며 내려 찧을 판이니까…

녀 참 대단한데요

남 대단하다 뿐이겠습니까? 그저 그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의 입안을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녀 뭐라구요? 입안을 구경하다니요

남 너무 대단하니까 그저 입이 딱 벌어진 채 한 동안 다물지 못하니까요.

녀 소리 없이 어느 새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정말 천리마의 속도로군요

남 기계 공업이 발전된 나라에서도 이런 프레스를 만들자면 3년 이상은 걸려야 한답디다

녀 그런 것을…

남 우리 천리마 기수들은 수상 동지에게 약속한대로 꼭 1년에 만들어 당 창건 15주년을 맞으며 당에 선물했단 말입니다.

녀 참 대단한 보배를 선물했어요. 정말 수고들 많이 했겠지요

남 예, 깨고, 마스고, 돌파하고, 타파하고…

녀 거듭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단 말이지오

남 아니 지레 짐작마시오 깨고, 마스고, 돌파하고 타파한 것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공칭 능력이였지요 30 톤의 공칭 능력을 가진 기중기로 75 톤의 소재를 물어 올려 운반한 유 중남 처녀 기중기 운전공, 75 톤 짜리 밀 가름'대를 4 개의 단능 설비로 개미가 뼉다귀 뜯어 먹는 식으로 만들어 낸 천리마 기수들…

녀 참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남 당과 수상 동지의 가르침에 충실한 우리 로동 계급의 혁명가다운 기질이 이런 기적을 낳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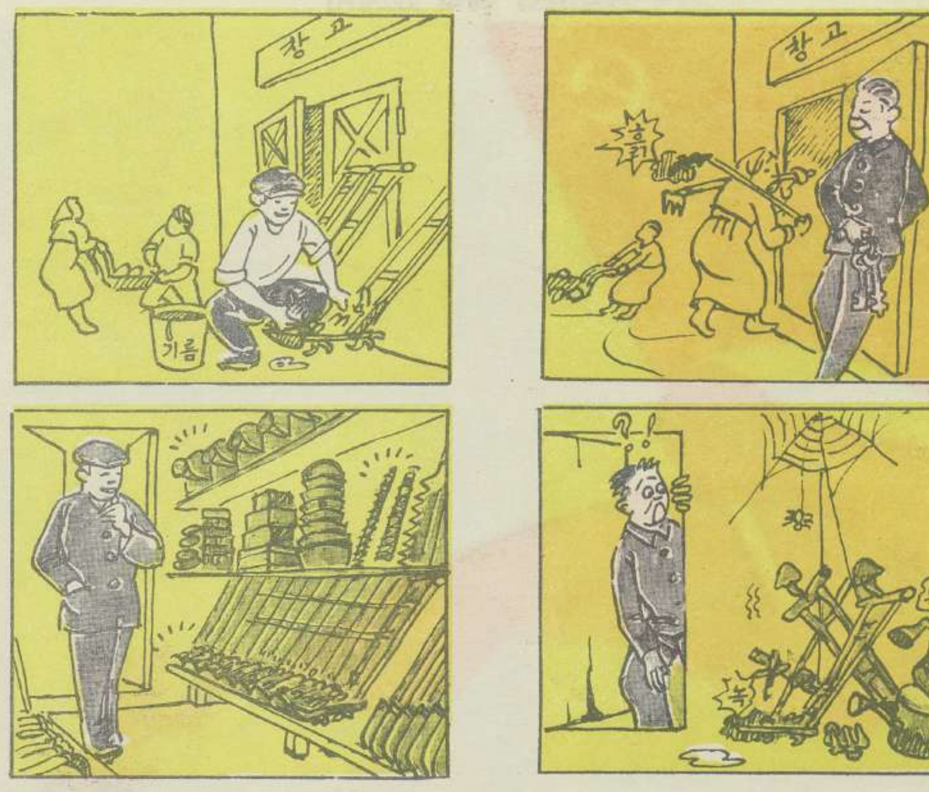
녀 이제 그 기계가 천리마로 달리면

남 우리 나라의 공업은 또 얼마나 더 자동화 기계화되여 일하기 쉽고 생산은 껑충 높아지겠습니까!

녀 로동당 시대에는 못하는 일이 없고 계속 기적만 낳는구려!

남 새로운 보배—3천 톤 프레스를 낳은 어머니 공장의 천리마 기수들에게 영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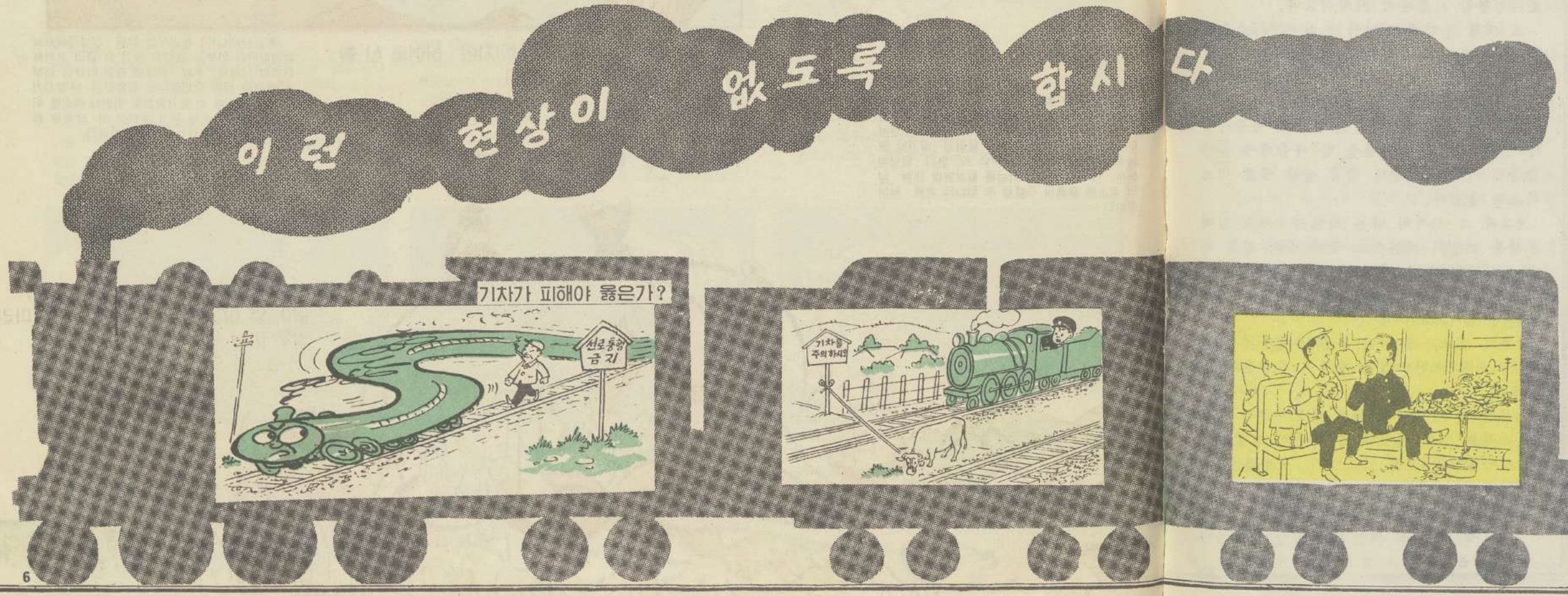
두 현상



《앞치레》

위생 사업에서 일부 가정(단천군)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손을 잘 대지 않고 있다.

함남 단천군 직절리
심 상기 그림



원 광수 그림

장성하는 위력 앞에서

백 인균 그림

털어 버린다

안 창수 그림

식민주의자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운동을 저지시킬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으나 식민지 제도의 종국적 멸망은 시간적 문제로 되고 있다.

숨은 가빠졌다

안 창수 그림

생존과 권리, 자유와 평화를 요구하여 일떠선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파업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자리 싸움

안 창수 그림

자본주의 시장이 더욱 더 축소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원료 원천, 상품 판매 시장, 자본 투하 지역 등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 간의 쟁탈전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바 이 첨예한 모순은 제국주의 진영의 력량의 약화를 더욱 더 촉진시키고 있다.

《국제 고아》

정 광영

미 국무 장관 허터의 아침 일과는 심히 호리멍텅한 기분에서 시작되였다.

요 며칠 동안에 련달아 드리 닥치는 불길한 통보 때문에 간밤에도 쪽잠을 자고 보니 눈알에 피'발이 서고 쭉지까지 나른하여 도무지 맥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사지를 놀리고 턱주가리가 물러 나도록 선하품을 한 다음에야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유엔 미국 상임 대표 워즈워스를 불렀다.

《그래 그 진저리 나는 식민지 제도 철폐 문제를 쏘련의 제안대로 끝내 총회 전원 회의 토의에 넘겼단 말이요?》

《글쎄 빌어 먹을 놈팽이들이 그만 쏘련 제안에 넘어 가서…》

《듣기 싫소, 왜 이건 공산 분자들의 선전 책동이라고 소란스럽게 웨치지 못했는가 말이오》

《사실 전 심장에서 아니 배창자에서 나오는 소리로 힘껏 웨쳤고 총회 의장 볼랜드씨는 의사봉까지 꺾어 먹으면서 소란을 피웠건만…》

《으흠…》 허터는 반 신음 소리를 지른다.

《도대체 그 쏘련 제안을 지지하여 연설한 건 어떤 놈이오?》

《이를테면 체코슬로바키야, 불가리야 루마니야 같은…》

《그건 공산 국가들이 아닌가》

《글쎄 그들을 선두로 해서 말리, 가나, 기니아, 모로코, 나이제리아 아니 전 아프리카 땅덩어리가 몽땅 들고 일어 났으니까》

《아니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왜 우리의 나발통들을 열지 못하는가 말이요》

《하긴 비룰빈 나발통을 열긴 했으나…》

《그래서?》

《그러나 인도 아프카니스탄, 큐바, 베네주엘라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 통에…》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구 이제 원조는 중지다 중지!》 허터의 목줄기에는 벌써 피'줄까지 내 뻗쳤다.

《국무 장관 각하! 짐은 벌써 유엔에서도 기우러진 것 같습니다. 저 광대한 아세아 아프리카, 지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까지 자유 세계의 사상은 9—10월 단풍잎처럼 죽어만 가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직 시기가 빠른 결론이요》

바로 그 순간에 비서가 들이닥쳤다.

《각하, 큐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통봅니다.》

《읽으시오》

《큐바에 보낸 간첩 27 명 전원 체포됨, 그중 미국인은 이미 총살 당함

* 추기, 앞으로 비행기에 의한 무장의 비밀 수송은 조심할 것, 금번 반란자에 투하한 일체 무장은 큐바 민병대의 수중에 들어감》

말대가리처럼 길쭉한 허터의 상통은 금시 청개구리 잔등처럼 새파랗게 질려가는데 귀찮게스리 전화벨까지 울린다.

맥 없이 수화기를 집어든 허터는 그것이 방금 라오스에 파견한 미 국무 차관보 파슨즈의 보고인데는 엉덩이까지 살짝 들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구 수반나 푸마가 우리 제안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구》

《노사방은?… 완전 포위를 당했다구?
라오스에 대한 원조 중지를 선포하오…
이미 선포했다구?… 그래도 효과가 없어?
으흠…》

심히 침통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워즈워스는 대화를 계속한다.

《각하, 사태는 유엔도 이와 꼭 마찬가집니다. 거수기는 이제 위협, 기만이라는 부속으로는 고칠 수 없이 완전 고장이 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메리카는 고립이란 말인가?》

《이를테면…》

《아니요 절대로 완전 고립은 아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장 개석, 장 면 같은 충직한 졸개들이 있소, 그들은 최소한도 우리와 함께 죽음까지 같이 할 것을 결심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벌써 공인된 산 송장이 돼 놔서》

《용기를 내오. 그래도 죽은 송장보다 산 송장은 한결 나은 거요》

그런 찰나에 이런 놀라운 전화가 또 다시 허터의 귀청을 때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어데라구 대한 민국 주재 미국 대사관?》

《말하시오》

《뭐뭐? 시위자들이 또 다시 국회 의사당을 포위 했다구. 응? 의장 단석은 벌써 점거 당했어?…》

수화기를 쥔채 의자에 풀석 주저 앉은 허터의 팔은 사뭇 위험했다.

그러나 그때 워즈워스가 마지막 한 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허터가 책상을 치고 나뻐드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하, 대한 민국에서 창조된 〈국제 고아〉란 술어는 결국 우리 아메리카의 오늘을 위해 지어진 것 같습니다》

× ×

그날 저녁 허터의 기막힌 일과와 함께 종합 통보가 미국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물론이다.

그때 미국 대통령의 표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말자

다만 담당 의사가 구급 전화를 받고 달려가니 대 아메리카의 대통령은 이미 쏘파에 늘어졌는데 그의 팔은 마치 배알 빠진 죽은 명태와 흡사했다는 것만 첨가 해 둔다.

《주택 전람회》

엄 동춘

1. 양캐굴

여기 서울시 신당동이나 장충동의 주택들을 보셔요.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화려합니까? 동력선, 전등선, 전화, 케블선이 거미줄 같이 늘어져 있지요. 서울 시내에서는 전력이 모자라 밤 10시부터는 수수 떡처럼 약간 붉으레하던 전등불조차 볼 수 없어 암흑 세상이 되고 말지만 서울 시내 전력의 75% 이상을 쓰는 태평양 건너에서 기여든 승냥이들이 사는 이런 집들에는 전등불, 네온싸인이 불야성을 이루어 언제나 휘황합니다. 겨울을 모르는 난방 장치, 수세식 변소—모든 주택 조건이 완비되여 있는 이런 집들에서 흘러 나오는 승냥이들의 저 노래는 쨔즈와 산송이라는 미국 노래랍니다.

이런 집들은 다 조선 사람의 재산이지만 양캐들은 집세도 안내고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집들을 양캐굴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남조선 주택 전람회를 보시기 전에 참고로 구경해 주십시요

2. 토개굴

양캐굴을 보신 김에 토개굴을 보신 후 주택 전람회를 구경하기로 합시다. 여기는 서울시 돈암동입니다. 여기에도 멋진 집들이 많지요, 두 길씩 되는 담장 우에 유리 쪼각이며 못방석이 박혔지요. 그러나 이 집들은 감옥은 아닙니다. 양캐들 앞에서는 꼬리를 치지만 조선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토개들이 사는 집입니다. 이 큰 조선 기와집들과 양식 문화 주택은 로략질과 사바사바로 얻은 막대한 돈으로 꾸린 것인데 그 속에는 벼라별 가정 용구와 장식품, 골동품들이 들어차 있고 엄동 설한에도 고무나무, 종려나무가 사는 따뜻한 방들— 이런 집들은 장 면 일당이 사는 집들인데 사람들은 이 집들을 토개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 민국》 주택 전람회를 구경합시다.

썩은 나무 부축한다고 살까?

매족적 반인민적 통치를 반대 배격하는 인민들의 거센 투쟁 앞에 장 면 괴뢰 내각이 꺼꾸러지는데 당황한 미제는 <국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위협 공갈하려 하는 등 괴뢰들을 부축하여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3. 판자'집

이건 큰 쓰레기 통인가구요? 아닙니다. 이게 남조선의 유명한 판자'집이랍니다. 미국 상품을 포장했던 널 상자를 사서 몇 시간만 뚝딱하면 지을 수 있는 집들입니다. 코'구멍만한 어둡고 추운 방에서 사람들은 콩나물처럼 끼워서 살지요.

이런 집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팔'자 좋은 편이지요. 리 승만을 그대로 닮은 장 면 일당은 주택난을 타개할 대신에 《도시 미관상 좋지 못하다》느니 《무허가》 건축이라느니 생트집을 잡아 판자'집들을 강제 철거시키는 횡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장 면 일당은 겨울을 앞두고 서울에서 4만 3천 여 호의 판자'집을 강제 철거시키고 있는데 4월 인민 봉기 이후에만도 벌써 3천 여 호의 판자'집을 닥치는대로 헐어버려 주택 사정은 더욱 기막히게 되였습니다.

4. 비틀 주택

그 다음에 구경하실 것은 비틀 주택입니다. 본래 낡은 주택들을 정전 후에 수리했어야 하겠는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 무슨 자재가 있어서 수리하겠어요. 그러니 한 잔 먹은 것처럼 비틀어지고 허물어져 간다고 비틀집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집들이 남조선에는 30만 호나 된다고 《산업 경제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면 일당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최근 미제는 《공정 환률》 1 딸라 대 650 환으로부터 일약 1 딸라 대 1,000 환으로 인상함으로써 남조선에서의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략탈 환률

최 영근 그림

—긴 것으로 바꾸었더니 밑창까지 빨아 먹기 아주 편리하군…

장 면의 《실업 구제책》

송 용남 그림

—자 누구든지 요구하는 사람은 모두 오시죠

5. 교하 주택

이것은 다리 밑을 리용한 주택입니다. 현재 남조선에 부족되는 주택 수는 무려 100여 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 이슬이라도 막으려고 다리 밑을 찾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교하 주택도 차례지기 힘들어 교하 주택 세'집에 들게 되는데 《집》세를 물지 못하면 한지에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6. 하수도 주택

교하 주택이 지붕의 덕을 본다면 하수도 주택, 배수통 주택은 벽의 덕을 보며 허리만 구부리면 지붕의 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조선 모든 도시의 하수도를 잘 보시면 의례히 거적이나 판자로 지은 하수도 주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바닥 밑에는 오물이 사철 악취를 풍기며 흐르고 있으니 나무 우에서 살았다는 원시인들의 주택은 여기다 비하면 신선일 것이 아닙니까!

7. 거적 아파트

정녕 집이 없어 한지에 쫓겨 난 사람들은 비, 이슬을 막기 위해 거적 지붕, 거적 벽의 진귀한 아파트를 꾸밀 수 밖에 없지요. 여기는 부산 부두'가입니다. 여기에는 2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30% 이상이 언제나 부두'가 로상에서 거적으로 몸을 가리우고 살고 있습니다. 미 군정 때도 판자'집이요, 자유당 시대에도 판자'집, 오늘도 판자'집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남조선 인민들이 한탄하지만 그 판자'집은 여기다 대면 고대 광실 같은 것입니다.

×

이 외에도 기괴한 주택을 들자면 끝이 없지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산간 벽지에서까지도 누구나 따뜻하고 밝은 고대 광실 같은 문화 주택에서 겨울 걱정 없이 사는데 남조선의 주택 형편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4천 년래의 민생고의 하나이지요. 빨리 양캐들을 제 굴로 쫓아 보내고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고 남조선 사람들도 문화 주택에서 걱정 없이 살기 위해 남조선 인민들은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치료난

유 진옹

《이 망할 자식 나라 망신을 시켜두 분수가 있지, 어디서 그따위 수작을 배웠어!》

뼈가 앙상하게 들어난 청년을 붙잡아다가 족여낸 서장은 서슬이 동동해서 호통을 쳤다.

《내 손에 칼날이 도서기 전에 썩 말해! 뭘 못해 먹어서 숫한 거지들을 몰구 다니면서 결식난을 해결하라 어쩌라 서울 장안을 더럽히는가 말이야!》

철그렁! 거지 대장을 류치장에 가둔 서장은 제풀에 성이 나서 사찰 파장을 불러 들였다.

《에…당장 비상 소집을 해야겠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뭔고하니 난'자 타령을 하는 놈들을 모주리 족쳐야겠단 말이요》

《난'자 타령이라니요?》

《그 망할 놈의 어려울 난'자 있잖소, 난난하는 바람에 요새는 난데 없는 생난까지 들구 나온다니까》

《생난이요?… 그게 무슨 난인데요?》

《뭐긴 뭐겠소 산아 제한 정책에서 나온 난이지 왜 어린 애를 낳는 자유마저 박탈하는가구 야단이거든》

서장은 후—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별 수 없소, 그저 취직난이요, 입학난이요, 주택난이요, 전력난이요. 또 무슨 난이요 하구 입 밖에 내는 놈만 있으면 달구 치란말이요!》

《념려 마십시오 이 무식한 놈이 주먹 밖에야 믿을 게 있습니까 헤헤헤…》

《그런데 죄명을 뭐라구 부쳐서 족칠가요?》

《죄명? 그 약방에 감초 있잖소. 사회 질서 문란 죄를 들씌우면 그저 그만이란 말이요.》

이때 사찰 파장은 문득 생각이 났다.

《저 한 가지 처리하기 곤난한 사건이 생겨서…》

《뭐가 또 어쨌다고 난'자를 끄집어 내며 하소연이요》

《사실인즉 3인 사건인데 신통히도 모두 피고자이면서 원고들이거든요.》

《그래?… 음… 필경 거기에는 놈들의 계구가 숨어 있소. 이를테면 그런 묘한 사건을 꾸며 가지구 우리한테 시비를 걸자는거요, 그래 놈들을 그냥 뒀소》

《그냥 둘 리가 있나요 원, 떡떡 맞서는 놈이 있기에 대가리가 빠개져라고 두들겨 냈지요.》

《좌우간 이리로 끌고 와! 내 솜씨를 보여 줄테니》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방금 파장한테 얻어 맞은 자가 서장의 삼촌이 아닌가!

서장은 순간 눈알이 뒤집히였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내색할 수도 없는 일이요. 또 당장 파장의 목을 딴다해도 속 시원할 것은 없었다.

《어서 네놈부터 말해 봐》

서장은 공장주에게 소리를 질렀다.

《예… 사실은 원료난과 전력난에 쪼들려 공장 문을 닫고 있었는데 마침 살 순지 죽을 순지 (서장의 삼촌을 가르키며) 이 분한테서 자금을 돌려 간신히 공장을 돌렸습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빚을 당장 내라니 어디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 나두 받으면 준다구 했습죠》

《받는 건 또 뭔가》

《저의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 간 이 사람(도매상)한테서 대금을 받아얍지요》

이 말을 들은 서장은 대뜸 도매상의 따귀를 후려 갈겼다.

《옳지, 바로 네놈 때문에 이 분(자기 삼촌)이 빚도 못 받구 이 꼴이 됐구나 이 도적놈!》

《뭐라구요?》 도매상은 이를 북북 갈았다.

《진짜 도적놈은 바로 이놈(서장의 삼촌)이요. 판로난을 해결해 준다고 내 물건을 앗아빼 가지구는 도망까지 쳤든 놈이요. 내 물건을 당장 받아 주》

《닥쳐!》 서장은 책상을 땅 치며 덤벼었다. 게다가 즉결 처분까지 내렸다.

《에 그만 하면 알만 해,우선 이놈(도매상)은 돈 한 푼 없이 남의 물건을 외상으로 말아서는 다시 외상으로 처분하는 고약한 폭리배요, 건달'군이야, 죄로 보면 엄중하지만 난 관대해, 줄 것과 받을 것을 프라스 마이나스하면 제로(○)가 되니 다시는 이렇다 저렇다 군소리 말란 말이야, 그리구 공장주로 말하면 우선 이분(자기 삼촌)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어, 그러니 그 대'가로 이분께 공장을 넘겨 주란 말이야,그러면 자금난이요 뭐요 할 필요두 없구 생산이 보장될 거란 말이야…》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불치병》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대한 민국의 정치를 사람과 비교하면 속은 썩을 대로 썩었고 겉은 모두매를 맞아 치명상을 입은 모 서장의 신체와 같으니 이제는 그 어떤 묘약이나 산소 호흡도 소용없고 다만 살아 있는 동안 치료난이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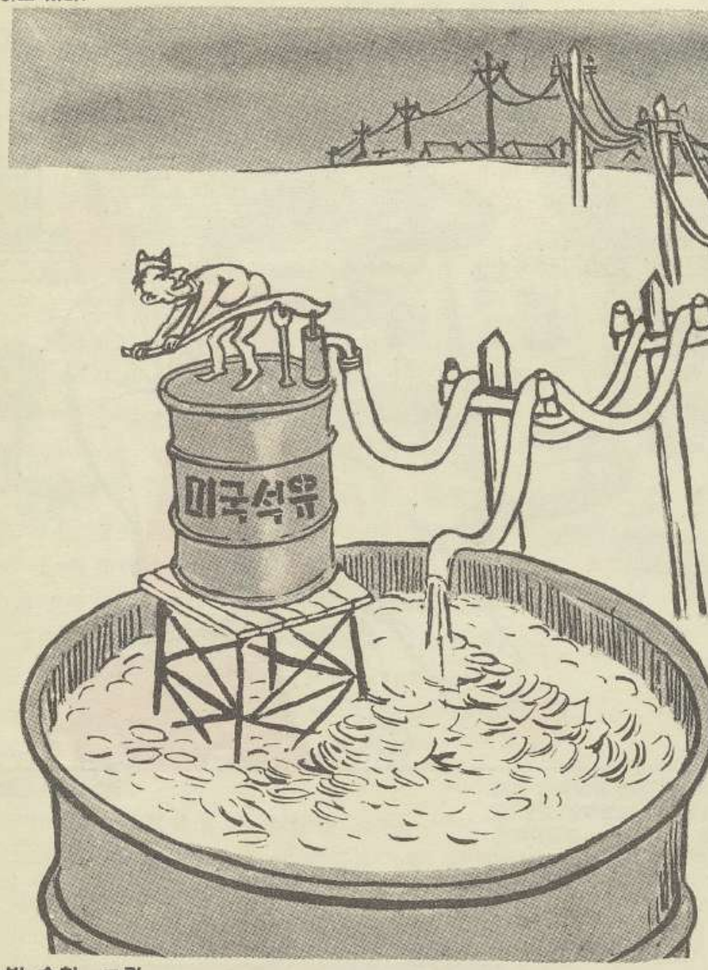
오난풍

미제에 의한 시장의 독점, 자금 봉쇄, 원료 가격의 통락, 군비 조달을 위한 고률 조세의 부과, 가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중소 기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 설비난, 동력난에 허덕이면서 날로 파산 몰락되여 가고 있다.

송 용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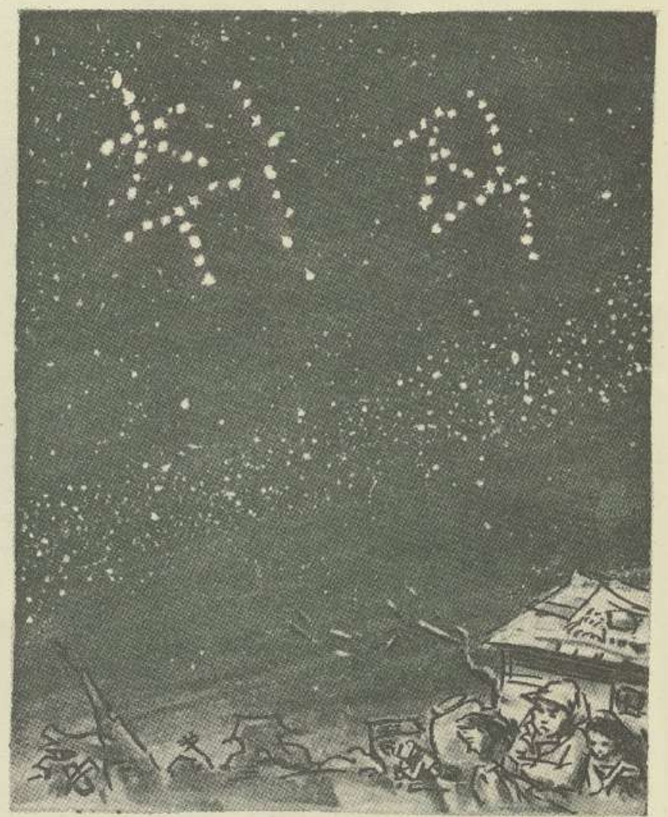
등치고 간 빼 먹기

미제는 남조선에 미국 석탄과 석유류를 고가로 팔아 먹기 위하여 남조선 전력 공업을 억제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



백 인균 그림

백주의 날강도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금속 공업은 여지 없이 파멸되였는바 지하자원의 채굴과 그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채굴되는 원광을 그대로 략탈 당하는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백 인균 그림

박 승히 그림

장 면의 허풍 장면

백 인규 그림

참을 수 없다

최근 서울에서는 영화 및 무대 예술계에 종사하는 500 여 명의 예술인들이 회합하여 괴뢰 도당의 양키 영화 수입을 규탄하고 《미풍량속에 위배되고 청소년 교육에 해독을 끼치는 일체 외국 영화를 일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 광수 그림

당황망조한 장 면

조 명식 그림

쥐구멍을 찾던 날

곽 일봉

《여러분,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장 면 내각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요. 나는 현 장 면 내각이 물러 갈 것을 요구하오.》

《옳소. 옳소…》

일전에 인민들에게 《의사당》을 점령 당한 사건을 놓고 괴뢰 국회 《의사당》 안에서는 《국회 의원》들이 서로 책임 추궁을 들이대고 있는 판이다.

《글쎄 경찰이 얼마나 맥이 빠졌으면 의사당까지 점령당하게 하고 전체 의원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 머리를 숙이고 빌게까지 만들었겠는가 말이요.》

괴뢰 지배권을 장 면의 신파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것을 빼앗아 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민주당》의 구파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모두 책임을 장 면 《내각》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악에 바쳐 계속 공박을 들어댄다.

구파에게 노랗게 공격을 받고 앉아 있던 신파 출신의 한 《의원》이 연단에 뛰여 올라갔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 면 내각을 나무라지만 그러나 우리도 할 말이 있소.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리해할 수 없소. 이 책임은 장 면 내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생각하오》

《옳소…》

이번에는 신파 《의원》들이 손벽을 짝짝 치면서 떠들어댔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법원이 책임져야 한단 말이요》

신파에게 공박을 받은 괴뢰 법원에 있는 한 《국회 의원》이 또 연단에 뛰여 올라 가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부정 축재자들을 비호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의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에서 〈부정 축재자들에 대한 처단을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 온 것을 잊었습니까, 그래서 내각에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한도에서 경제의 파탄을 가져 오지 않는 한계에서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거의 처벌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그들을 무죄로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옳소…》

이번에는 법원측들이 고함을 쳤다.

《그리고 장 면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소.

우리 법원에서 그렇게 요구한 살인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왜 그렇게 태공하였는가 말이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의 책임은 우리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있는 것이요…》

《지당한 말이요…》

《국회가 책임지라구?》

이번에는 회의를 집행하던 《국회 의장》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 국회가 잘못한 게 무엇이요. 에잇 빌어 먹을 것, 나는 국회 의장을 못해 먹겠소. 사표를 내겠소…》

《국회 의장》은 입술까지 바르르 떨면서 손에 쥐고 있던 《의사봉》을 내동댕이치고 달아났다.

그리하여 며칠 동안 《의사당》을 점령 당한 사건을 가지고 서로 물어 뜯을 내기를 해 오던 괴뢰 《국회》 본 회의는 이날도 또 서로 욕설만 퍼붓다가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이 때였다. 밖에서 시위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국회 의사당》 안까지 들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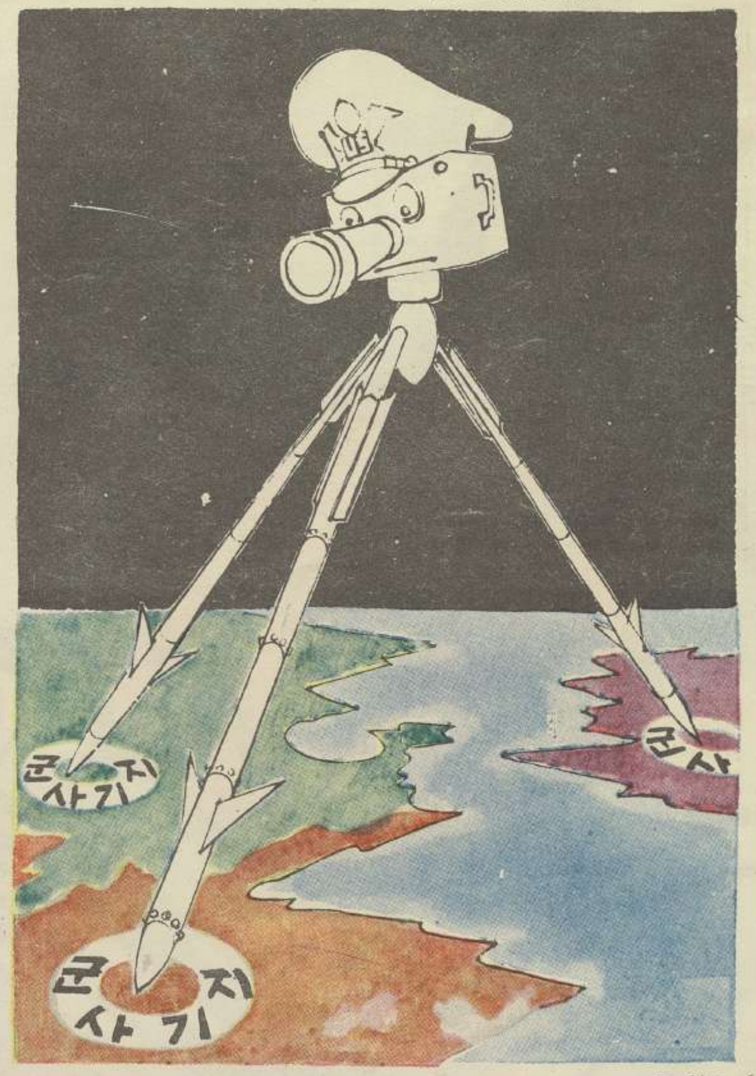
순간 《국회 의원》들은 전날에 한 번 혼'살이 난 일이 있은지라 또 《국회 의사당》 안으로 군중들이 쳐들어 오는 줄만 알고 쥐구멍을 찾기에 바빠 돌아갔다.

어떠한 사람은 의자를 뒤집어 쓰는가 하면 또 어떤 《의원》은 책상 밑에 대가리를 들어 박으며 또 어떤 《국회 의원》은 땅 바닥을 벌벌 기여 다니면서 눈이 휘둥그래져서 바깥 형편만 살피고있었다.

나종에 알고 보니 이날 《국회》 바깥에서는 시내 《국민 학교》를 다니는 조무래기들이 《공납금을 없애라!》고 웨치면서 《국회》 앞을 행진해 나갔던 것이다.

미국 제안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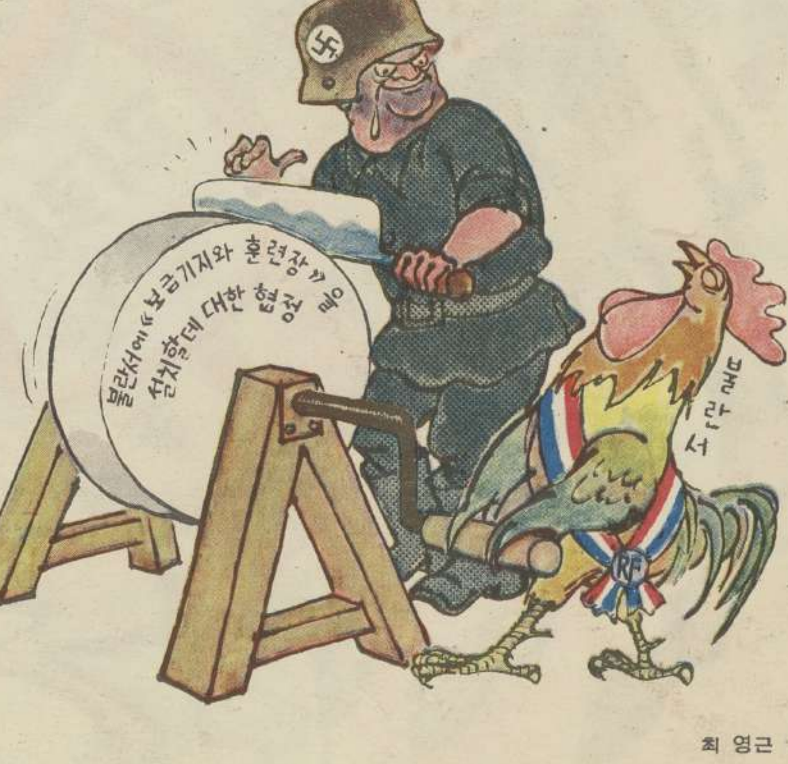
미제는 군비 철폐 없는 관리만을 주장함으로써 타국에 대한 정탐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우둔한 협조

군국주의 서부 독일 군대를 불란서 령토에 주둔시킬 《보급 기지와 훈련장》을 설치할 데 대한 협정이 불란서와 서독 간에 체결되였다. 이것은 불란서가 다시금 파쑈 서부 독일의 침략을 받게하는 자살 행위인 것이다.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 립 미 술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6122

발 행 1960.11.20

(값 40전)

백 인균 그림

95
Хвальсаль
8034
Па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1 V-12 №8С34